原則으로 하고 園、廟、壇은 學術上、由來上 價値가 있는 것부터 優先的으로 永久保存토록 하되 具體的인 分類策定은 實地踏査後 完全分類 策定토록 하였다。

(5) 太和寺址 十二支浮屠 移轉 承認申請은 發見場所에 堅固한 標識을 세우고 將次 博物館을 建立하여 保管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移轉承認할 것으로 可決되었다。

(6) 慶會樓補修計劃은 原案대로 承認하되 施工은 文化財管理局에 一任키로 하였다。

(7) 指定業者選定은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檢討한 후 直接對面審査後 指定業者 資格 有無를 決定키로 하였다。

(8) 社稷壇正門工事의 訴願狀處理는 當該業者가 南大門에 關與하고 있는 점과 그 기술과 공사업적에 의거하여 文化財工事 許可與否를 決定할 것이나 社稷壇處理工事에 關하여는 工事繼續을 不許함을 決定하였다。

石窟庵通信(六)

鄭 明 鎬

一、六月初 前室과 扉道에 臨時로 細石片을 깔고 從前의 土壤이 除去되었다。

一、日帝施工인 窟外洋灰層의 配合率과 乾燥度를 調査하기 위하여 西南便에 二個處 東北便에 一個處를 試掘하였던 바 아직도 多量의 水分을 含有하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一、窟內實測은 六月末 現在 八部神衆과 四天王 二軀를 完了함。

一、石窟外周를 돌아서 施工된 新排水路는 後面의 岩盤을 계속 開鑿하므로써 水位低下를 期하였으며 竣功된 假屋蓋로부터의 落水處理를 위하여 또하나의 排水路를 周崗上에 假設하였다。

一、寺址發掘은 現庵前方地域을 六月 七日로서 끝내고 三層塔 北方殿址를 發掘하였는 바(六月八日—十五日)地表下 四寸에서 礎石과 土壇石 古瓦(新羅圓平瓦 鬼瓦片 李朝銘瓦) 陶磁片이 發見。六月十九日—七月三日까지는 現庵前方을 第二次 試掘하였고 舊地表를 따라 土壤을 除去하여 廣場作業을 하였다(瓦片等採取)。

一、六月下旬부터 窟內濕度가 高昇하므로써 (6/20→6/25, 6/30降雨) 本尊臺座 下部와 仁王像足下部 窟內諸像의 膝部以下에 水滴이 凝結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雨期接近에 따라 窟內外 氣象條件變化에 注目하고 있다。

＊ 李朝在銘平瓦 「萬曆十年壬午七月什□日造成大施主禹孫雨主 各上?修善□大 木覺登竹使?禪萬夫己石田」

來訪人士：軍事停戰委首席 J.R. Wims 少將(6／13)
明治大學 島田正郎 敎授(6／15)
文化財委員長 金庠基氏外 一行五人(6／18)
新嘉波博物館長 Gibson Hils(6／27)
慶北大 李鍾煥 敎授 國博 李永樂氏
李淮求氏(7／1)

南大門通信(二)

申 榮 勳

四月 二十五日부터 着手된 石築解體工事는 六月 五日 끝나고 六月 十日頃부터는 南面解體部分의 復元을 始作하였다。

解體時 調査된 事項만을 抄記 紹介하기로 한다。

上段 壁石부터 들어내면서 積心의 解體도 同時에 施行하였는데 虹蜺上面 長台石 사이에서 높이 四寸三分(中腹直徑一寸五分 上下直徑一寸二分)되는 隱釘이 發見되었다。積心은 大石을 놓고 그 잇잠을 雜石으로 괴이고 그 間間에 剛灰기 있는 白土를 다져 넣어 動搖와 沈下를 相互 抑制하는 方法으로 施工되어 있었다。

積心石과 壁石은 有機的인 方法으로 서로 힘을 받도록 結構되어 있어 大端히 緻密한 計劃下에 着實하고 堅固하게 施工되었음을 알겠다。이와같은 施工의 例를 南東側에서 보자면 壁石의 폭(돌과 돌이 놓여지는 넓이)이 每層 差異가 있어서 한층 壁石이 놓이고 積心石이 이맞추어 나란히 놓이면 그 위의 壁石의 폭은 아랫것 보다 좁아 積心石이 壁石의 뒷몸을 자연히 물게 되도록 놓여 있다。이때 壁石과 壁石 사이는 剛灰와 白土를 一：一比率로 混合된 몰탈로 싸발르고 積心과 積心 사이는 剛石과 剛灰기 (剛灰一：砂土二·五)가 있는 砂土를 다져 넣